

삼국유사 감통에 나타난 상담과정의 의의에 관한 연구*

이진현
(부산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 「감통(感通)」을 한국의 상담 고전으로 이해하고, 그것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M. McLuhan의 미디어적 관점으로 『삼국유사』 「감통」에 관한 문헌고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얻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유사』 「감통」 속 이야기들은 상담적 형태와 구성을 띠고 있었으며, 이는 상담사상과 철학이 담긴 상담 고전으로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삼국유사』 「감통」에 함의되어 있는 상담 과정은 일련의 연속적인 자기 탐구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즉, 상담 과정은 자기 탐구 과정으로, 개인의 의식 수준을 확장시키고 분열된 내면의 힘을 통합하여 치유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삼국유사』 「감통」에서 언급하는 상담은 자기 탐구를 위한 이 모든 과정이 선순환되는 과정 그 자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삼국유사 감통, 상담과정, 상담 고전, 상담사상, 상담철학

I. 서론

상담을 이해하는 관점들 중, 다양한 문화권에 따라 생활 세계가 상대적이고 독특한 속성을 지닐 수 있다는 관점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상담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재용, 2018: 492). 분석심리학에 입각한 한국 문화적 특성과 원형으로 한국인들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한다거나, 서양의 심리치료 이론들과 기법들을 동양문화권이 지닌 사회적 맥락들에 의하여 재해석하고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접근하는 예는 이에 따른 노력들이라 볼 수 있다(이동식, 2008: 39-40; 이부영, 2017: 398-399; 이희백, 2011: 45-46, 2012: 15-17). 김문준, 하창순(2013:

* 이 논문은 한국동서정신과학회가 주최한 제38차 추계학술대회(2018년 11월 24일) 구두발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158-160)은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상담은 유·불·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상담과 불교는 명상이라는 실제적 접근이 가장 많았으며, 상담과 유교로는 인간에 대한 내적 구조나 체계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려 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반해 도교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며 주로 도교 안에 담긴 상담적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접근들은 기존의 상담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동양심리학이라는 융합적 접근으로 동양사상과 철학에 입각하여 상담을 이해보려는 시도들이라 할 수 있다(Ibid., 2013: 181-186;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588-589; Ibid., 2018: 492-493).

일반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는 개인의 증세를 제거하는 상담기법이나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호소문제로 표현되는 증상에 초점을 두어 이를 완화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각종 방법론을 강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담자는 상담장면에 참여하는 순간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개인상담 신청서, 심리검사, 접수면접 그리고 상담 등을 통하여 상담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상담자는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호소문제를 인식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부호화시켜 내담자의 내적 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내담자와 합의한 공동의 상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담적 개입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조력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와 같이 상담과 심리치료 과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8: 94). 이것은 상담과 심리치료가 서양 의학 모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동식, 2015: 28-32; Ibid., 2013: 181-182). 따라서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는 이와 관련된 개념과 이론, 방법론을 강조하게 되면서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담이 문화적 환경 속에 포함된 개인과 개인 내적 과정을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Ibid., 2008: 61-62; Ibid., 2011: 34; 이희백, 2018: 105-106).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삶의 환경을 증상과 분리시켰다는 것이다(McLuhan, 2003/2017: 137-141). 그렇기 때문에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증상 제거라는 서양적 접근과 환경적 맥락 속에서 개인을 이해하는 동양적 접근에 상대적인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심리학은 과학을 표방하고 있고, 동양사상과 철학적 접근은 마음에 대한 철학을 뜻하기 때문에 학문적 입장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도 한다(Ibid., 2013: 159-156; Ibid., 2018: 492, 508). 또한 상담과 관련된 연구에서 다른 분야와의 융합적 시도 등은 부족하고 상담 분야 내에서만 연구가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이상민 외, 2018: 472). 그 결과, 동양사상과 철학에 기반을 둔 한국 상담모델에 관한 경험적 자료에 한계가 존재하고, 한국적 상담에 대한 정의 또한 연구들 사이에서도 합의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Ibid., 2007: 5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우리가 상담장면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은 하나의 공통된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과 연관된 일상적 관계, 시대적 분위기에 의한 특정 행동과 태도, 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본다(권진숙, 2016: 46-48; 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6: 94; Jung, 1995/2015: 345). 이것은 환경이라는 공통된 맥락 속에서 성장배경, 사회적 관계와 유의미한 대상과의 교류, 성격과 행동양식 등을 발달시켜 개인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그 의미들을 함축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맥락 속에 함축된 의미로서 존재하는 개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개인을 구체적, 입체적, 총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므로 상담과정에서 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 존재하는 한국인과 그들의 심리 내적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적 토대를 지닌 상담사상과 철학에 대한 발견을 시도하기 위한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제시하고자 한다. 『삼국유사』는 당대 우리나라의 역사와 종교, 사상, 설화, 민담 등을 집대성한 자료로 그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당대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경제학적 이해, 문화유산으로서 예술적 특징, 문학적 특성과 구조, 불교적 가치 등을 밝히는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신창호, 은필관, 2011: 77; 예철해, 2007: 227). 최근에는 『삼국유사』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그 원리와 함의들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학 고전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박재영, 2013a: 21-22, 2013b: 61-63; Ibid., 2011: 92-93; 안경식, 2005: 106, 2017a: 40-42, 2017b: 176-178, 2018: 86-88; Ibid., 2007: 240-241; 임태평, 2002: 132; 한용진, 2007: 11).

상담으로서 『삼국유사』를 이해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는 것은 낯선 작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에서 상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편목들 중 「감통(感通)」의 이야기들 때문이다. 먼저 「감통」의 뜻을 살펴보면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면에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는 통찰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감통」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대상 즉,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느낌들이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들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의식 수준을 확장시켜 나가는 조력 과정이 상담이라고 본다면, 「감통」편과 상담은 상호 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¹⁾

1) Rogers(1961/2015: 29-42)는 자신의 배움과 경험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통하여 심리치료 전문가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cLuhan(2003/2017: 28-31)이 주장한 “미디어(media)가 메시지(message)다.”라는 미디어 이론의 관점에서 『삼국유사』 「감통」을 이해하고 그 유사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미디어는 인간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확장시킨 은유와 상징의 형태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환경 속에 담겨 있다. 우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미디어가 제공하는 의미와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메시지이며 그것은 하나의 콘텐츠(contents)의 형태로 메시지 즉,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김균, 정연교, 2004: 7-15; Ibid., 2003/2017: 28-31).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감통」을 포함한 『삼국유사』 전반의 내용들은 일연이 승려로서 일반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눈 이야기들을 글로 쓴 책이라는 콘텐츠이며, 그것은 문자미디어의 형태로서 일관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상담으로서 『삼국유사』 「감통」을 이해하고 그것이 오늘날 상담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한다.

II. 상담의 과정으로서 「감통」²⁾

1. “선도산 성모가 불사를 좋아하다(仙桃聖母 隨喜佛事)” - 나에게 주어진 배움의 기회

「감통」은 상호 관련 없는 별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어디 하나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들은 없으나, 이 이야기들을 미디어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한 주제를 은유하고 있음을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선도산 성모가 불사를 좋아하다”에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로서의 사고와 철학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여기에는 그가 정의하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질적 특성이 담겨 있다. 자신 그대호가 되는 것, 대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가치, 자유로운 자기표현, 대상의 경험에 대한 수용과 이를 듣고자 하는 태도, 경험을 통한 주관적 의미의 충족, 기존의 지각과 개념화에 대한 포기, 긍정적 방향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깨달음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귀결된다. 삶은 경험이 흘러가는 과정으로, 개인적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담은 되어가는 과정 속에(in process of becoming) 있는 삶과 그 경험적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확장시켜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2) 『삼국유사』 「감통」의 인용문은 이범교(2015: 420-475), 이재호(2008: 327-374), 하정룡(2009: 603-639)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나는 선도산 신모이다. 네가 불전을 고치려는 것이 기뻐서 금 열 근을 주어 그 일을 돕고자 한다. …(중략)… 매년 봄과 가을 두 계절의 열흘 동안 남녀 신도들을 모아서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해 점찰법회를 베푸는 것을 일정한 규정으로 삼아라.

이 지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배움의 기회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행해야 하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전체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된다. 이를 위한 주제는 우리의 삶과 일상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이며 그것은 나이나 성별, 사회경제적 위치 등을 따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일상 생활은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며 이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를 둘러싼 대상 즉 인물, 가족, 친구, 동료, 사회적 가치, 역사적 배경과 사건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 관점의 환경에 둘러싸여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탐구와 깨달음의 여정 즉 상담을 시작해나가게 된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베푸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베품에는 그것을 받는 대상도 있지만 그것을 주는 대상도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탐구 과정을 잘 아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대상임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 과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에는 습득된 지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 있고, 그것을 자신만의 깨달음으로 내재화하여 표현하며, 일반 대중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등 특정한 내용에 대해 교육받고 훈련받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기 탐구 과정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한편으로는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과정에서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보았을 때 자기 탐구 과정에는 필요한 특정 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깨달음의 과정에 참여하는 대중, 자기 탐구 과정이라는 목표,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전문가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 그것이다. 이 요소들은 상담을 정의하는 요소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 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 내담자와 상담자가 상호 간의 합의를 거쳐 해결하기로 결정한 공동의 주제와 목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담이라는 직접적 문장과 표현 없이도 이 이야기가 은유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다음의 이야기들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임을 유추해낼 수 있다.

2. “선도산 성모가 불사를 좋아하다(仙桃聖母 隨喜佛事)” - 자각하지 못한 내재된 물음

「감통」 첫 번째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선도산 성모로, 신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리는 상징적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으로서 해당 인물의 설정은 혁거세왕과 알영, 두 성인을 낳은 모체임에 실질적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혁거세왕과 알영은 선도산 성모의 자녀임을 서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녀의 신령스러움을 잇는 존재적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이 공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성장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추구할 수 있을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신모는 본래 중국 제실의 딸이었고 이름은 사소였다. 일찍이 신선의 술법을 배워 신라에 오랫동안 머물며 돌아가지 않았다. … (중략) … 신모는 오랫동안 이 산에서 머무르며 나라를 지켰는데, 신령스럽고 기이한 일이 아주 많았다. … (중략) … 제54대 경명왕은 매 사냥을 좋아했는데 일찍이 이 산에 올라가 매를 놓았다가 잃어버리고는 신모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만약 매를 찾게 되면 마땅히 작위에 봉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매가 날아와 책상 위에 앉았고 이로 인하여 신모를 대왕의 작위에 봉하였다. 아마도 신모가 처음 진한에 와서 성자를 낳아 동국의 첫 임금이 되었으니, 아마 혁거세왕과 알영의 두 성인을 낳았을 것이다.

선도산 성모라는 모체는 공간이라는 상징적 은유로 국가적 공간과 연결 지을 수 있으며, 신라라는 공간은 신령스러운 국가라는 명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그 속에 살아가는 대중들은 아직 자기 안에 내재된 물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자신에게 필요한 물음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를, 혁거세왕과 알영이라는 두 성인을 낳았다는 것으로 상징하여 언급해주기도 한다. 이는 자기 탐구에 대한 필요성이 자각되지 못한 상태로, 환경적으로만 조성되어 있을 뿐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아직 인식되지 못한 어떤 물음이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문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필요성을 인식하는 순간,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그 때 내담자는 상담에 참여하게 된다.

3. “여중 옥면이 염불하여 서쪽으로 올라가다(郁面婢念佛西昇)” - 배움을 위한 수용적 자세와 태도

「감통」 두 번째 이야기의 주요인물은 옥면이라는 이름의 여중이다. 배움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수직선 상의 개념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자기를 내려놓아야한다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의 신분은 사회경제적 위치의 특성 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 속에서 옥면은 자신의 신분적 제약에서 요구되는 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움을 위한 과정에 상황적 이유들은 핑계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자신에게 그 시간이 더욱 더 절실해지고 간절해진다는 것이다.

아간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귀진의 집에 여중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은 옥면이다. 여중은 주인을 따라 절에 이르면 마당 한 가운데 서서 승려를 따라 염불을 하였다. 주인은 옥면의 행동이 직분에 어긋남을 미워하여 늘 곡식 두 섬을 주어 하루 저녁에 다 쪼으라고 하였고 여중은 초저녁에 쪼는 것을 마치고 절로 돌아가 염불했고 ... (중략) ... 해가 지고 밤이 되기까지 그것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녀는 뜰의 좌우에 긴 말뚝을 세워놓고 두 손바닥을 꿰어 노끈으로 꿰어 말뚝 위에 매고는 합장하며 좌우로 이를 흔들며 스스로 격려했다. ... (중략) ... 이와 같이 하기를 9년, 을미년 정월 21일에 부처에게 예불을 드리다가 집의 대들보를 뚫고 날아갔다. ... (중략) ... 그 전당에 방을 붙여 옥면등천지천이라 했다. 집 마루의 구멍은 10위 가량 되었으나, 폭우나 함박눈이 내려도 집은 물기에 젖지 않았다.

절실함과 간절함은 배움에 대한 성실한 태도로 이어진다. 성실함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위의 반복으로,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내는 것이 바로 성실한 태도라는 것이다. 약속된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담은 시작될 수 있다. 여러 상황적 이유들로 상담을 거부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는 낮은 자세와 간절함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성실하게 해내는 태도가 상담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우리를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게 될 것임을 뚫려진 집의 대들보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광덕과 엄장(廣德嚴莊)” - 경계해야 할 행동과 실천해야 할 행동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광덕과 광덕의 아내 그리고 엄장이다. 광덕과 엄장은 배움의 과정을 함께 노력해온 동료이며, 광덕의 아내는 그들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등장한다. 특히 광덕과 엄장은 반복되는 배움의 과정에서 서로를 경계하고 독려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담의 여정에서도 서로를 경계하고 독려해줄 수 있는 동반자적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문무왕 때 승려 광덕과 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친하여 밤낮으로 약속하며 말하기를 “먼저 서방 극락으로 가는 이는 반드시 서로 알리세.” … (중략) … “나는 이제 서쪽으로 가니 그대는 잘 지내다가 어서 나를 따라오게!” … (중략) … 이튿날 엄장은 광덕이 살던 곳을 찾아가보니 광덕이 과연 죽어있었다.

하지만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경계가 풀어지고 지루함과 게으름의 마음이 피어나게 되어 우리는 종종 달콤한 주변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 또한 상담의 과정은 때때로 자기가 생각한 바와는 달리 동반자 없이 혼자서 여정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끔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그의 아내와 함께 광덕의 유해를 거두어 같이 장사를 지냈다. 장사를 마치자 엄장은 광덕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이 죽었으니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떠합니까?” “좋습니다.” … (중략) … 광덕의 아내가 말하기를 “남편은 나와 십여 년을 함께 살았지만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나를 육보이려 합니까? 다만 밤마다 단정히 앉아 한 가지 소리로 아미타불을 외웠고 혹은 극락에 가기 위하여 닦는 법인 16관을 행하며 그것을 달관하였으며 밝은 달이 창에 비치면 때때로 그 빛에 올라가서 가부좌로 앉았습니다. 정성이 이와 같았으니, 비록 서방정도로 가지 않으려고 해도 그곳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 (중략) … 엄장은 부끄러워 물러나왔다. 그 길로 원효 법사의 처소에 이르러 진로를 간절하게 구하였고 원효는 생각의 더러움을 없애고 깨끗한 몸으로 번뇌의 유혹을 끊는 정관법을 만들어 그를 지도하였다. 엄장은 몸을 깨끗이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를 꾸짖어 한 가지 뜻으로 관법을 닦았으므로 또한 서방정도로 가게 되었다.

새로운 동반자의 등장은 그 대상이 마치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경계가 풀어지고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상대를 통하여 떠올랐으나, 정작 자신은 그 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대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투사 과정으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다.³⁾ 이를 광덕의 아내라는 상징적 인물과 엄장의 깨우침이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짐을 보여줌으로써 이 과정에는 유혹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무석(2008: 170)은 투사(projection)를 “자신이 비의식(unconscious)에 품고 있는 공격적 계획과 충동을 남의 것이라고 떠넘겨버리는 정신기제”로 정의하였다. 비의식 속에는 불안을 일으키는 충동이나 욕구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망상 또는 환각으로 투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타인 또는 외부 대상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모습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5. “경흥법사가 문수보살을 만나다(憬興遇聖)” - 아직은 알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수용

우리는 가끔 일정한 배움의 과정이 끝나면 어느정도 지식을 쌓았다고 생각하여 다 배웠다고 자신하게 하게 될 때가 있다. 배움이 일어난 물리적 공간에서 자기 삶의 공간으로 넘어갈 때, 배운 지식이 재경험되고 재구성되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음해본다면 어떨까? 아마도 다 배웠다고 자신하는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를 것이다. 이는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담 과정에서 축적된 자기이해에 관한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제한된 상담 과정의 공간을 넘어 삶의 모든 장면들과 대상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려주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개요 원년(681)에 문무왕이 장차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신문왕에게 뒷일을 부탁하였다. “경흥법사는 국사가 될 만하니 내 명령을 잊지 말라.”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국사로 책봉하고 삼랑사에 살게 했다. 경흥이 갑자기 병이 나서 한 달이 넘도록 앓았다. 한 여승이 와서 그를 문안하고 『화엄경』 가운데서 ‘착한 벗이 병을 치료해준다는 얘기’를 말했다. “지금 스님의 병은 근심으로 생긴 것이니 즐겁게 웃으면서 나을 것입니다. 이에 열한가지의 모습을 만들어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게 하니 뽀족하기도 하고 깎은 듯도 하여 그 변하는 모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모두 너무 우스워 턱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이에 경흥의 병은 자기도 모르게 씻은 듯이 나왔다. 그러자 여승은 문을 나서며 남향사로 들어가 사라졌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십일면원통상 탕화 앞에 있었다.

경흥법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스승으로 책봉될 정도로 높은 지식을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그야 말로 지식을 갖춘 사람의 상징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돌봄은 필요하다. 여승은 경흥법사가 지닌 근심의 병을 살피게 하는 인물이다. 또한 여승은 십일면원통상 탕화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상징을 통하여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대상들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근심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하나의 지식으로서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지식을 배운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 삶에서도 그 배움을 확장시켜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때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은 비린내 나는 짐을 짊어진 행색이 거칠고 영성한 거사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이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중에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들 중, 꺼리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느낌들을 모아서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해보면 아마도 이 거사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느낌들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상담에서는 주로 그런 느낌에 대한 자기보호와 욕구의 충족을 위한 반응으

로 방어가 일어난다.⁴⁾

경홍이 어느 날 대궐에 들어가려 하니 시종하는 이들이 동문 밖에서 먼저 채비를 차렸다. 그런데 말의 안장과 신과 갓이 매우 화려하여 행인들이 길을 비켰다. 그 때 모습이 거칠고 영성한 한 거사-혹 사문이라고 씌어 있다-가 손에 지팡이를 짚고 등에 광주리를 지고 와서 하마대 위에서 쉬고 있었는데 광주리 안에는 마른 물고기가 있었다. 시종하는 이가 그 거사를 꾸짖었다. “너는 중 옷을 입고서 어찌 부정한 물건을 짊어지고 있느냐?” 거사는 말했다. “두 다리 사이에 생고기를 끼고 있는 것보다는 시장의 마른 고기를 지고 있는 것이 뭐가 나쁘냐?” ... (중략) ... 사자가 와서 이 사실을 알리니 경홍은 듣고 탄식하였다. “대성 문수보살이 와서 내가 말 타는 것을 경계하셨구나.” 그 후 경홍은 종신토록 다시 말을 타지 않았다.

앞에서 경홍법사는 근심이 다양한 모습의 사람으로 등장한다고 배웠지만, 실제 그는 사람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높이의 말을 탐으로써 그 근심을 마주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의 안장과 신, 갓 등의 화려함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거사를 마주하는 대상도 자신이 아닌 시종하는 이가 대신함은 이를 지지하는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대상을 꺼리는 마음과 멀리하고 싶은 느낌을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 볼 수 있다.

사실 경홍법사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모습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자동적이어서 자신의 행동이 방어인지 알아차릴 수 없을 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자신에 대해 다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아직 알지 못한 자신이 존재함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자신에게 방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지와도 같을 것이다. 즉, 스스로에 대해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겸손의 태도인 것이다. 아직 알지 못했음을 깨닫고 이를 수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6. “진신이 공양을 받다(眞身受供)” - 자각되지 못한 그 때 그 느낌의 재경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소화해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한다. 상담이라고 하는 배움의 과정에서 새로이 얻게 된 지식으로 자기

4) 본 연구에서 방어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의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로 설명된다. 이무석(2008: 160-161)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갈등(conflict)을 처리하기 위한 자아(ego)의 노력”으로 방어기제를 정의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마음의 안정을 원한다고 본다. 마음의 안정을 깨는 위협으로 불안이 발생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부분이나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 방법이 방어기제라는 것이다.

삶의 현상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행동들은 그 노력들 중 하나일 것이다. 종종 이러한 노력은 자신에게 문제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 때문이지, 스스로의 방어적 태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등장하는 방어는 앞의 이야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너무 사회화 되고 세련되어서 그것이 방어가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특정한 대상에게 대한 방어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8년 정유에 낙성회를 열어 효소왕이 친히 가서 공양했다. 그 때 한 비구승이 있었는데 모습에 누추했다. 그는 몸을 움츠리고 뜰에 서서 칭하며 말하기를 “빈도도 재에 참석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왕은 그에게 말석에 참여하라 허락했다. 재를 마치려 하자 왕은 그를 희롱하고 비웃었다. “비구는 어디 사는가?” 중이 말하기를 “비파암에 있습니다.” “지금 가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국왕이 친히 불공하는 재에 참석했다고 말하지 말라.” 중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폐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진신 석가를 공양했다고 말하지 마시오.” 말을 마치자 몸을 솟구쳐 하늘에 떠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버렸다. 왕은 놀라고 부끄러워 동쪽 산에 달려 올라가서 그가 간 방향을 향해 멀리서 절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찾게 했다. 그는 남산 삼성곡, 혹은 대적천원이라는 곳에 이르러 바위 위에 지팡이와 바리때를 놓아두고 숨어버렸다.

앞의 이야기와 연결 지어 보았을 때 효소왕은 말을 탄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 자기 탐구를 위한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기 시작한 인물로 상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왕이라는 은유적 설정은 아직까지도 방어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희롱하고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외형으로 수평선 상 끝자리에서 재를 참여하게 된 석가모니의 등장으로 지지된다. 공양을 드리는 중인 효소왕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멀리함으로써 자신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만 없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방어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방어가 합리화된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세계에서 정의되는 위험을 인식하게 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왕에게 석가모니의 외형적 모습은 아마도 내면의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위험이 인식되면 그것을 피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위험을 불러일으킬만한 요소가 지금 여기에서는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때 거기의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며, 현재 자신의 지각 또한 지금 여

기가 아닌 그 때 거기의 시점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해왔던 노력들이 실제 삶에서 잘 실천되지 않고 그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한다. 여전히 방어로 인하여 지금 여기의 삶과 주변 사람들은 오직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상담 과정이 자신의 삶과는 괴리된 느낌이 들기도 하여 과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이 잘한 일인지 의심되고 도리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방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고 발달되어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일부로 발달되어 왔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7. “월명사의 「도술가」(月明師兜率歌)” - 그 때 그 느낌을 만나는 표현⁵⁾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대상들에 대한 높이를 낮추고 그 경계를 내려놓게 되면 즉, 방어를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대상을 왜곡 없이 마주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을 왜곡 없이 마주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왜곡 없이 마주하게 된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떠올랐을 때 이 느낌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인식하지 못했던 느낌을 자극하였기 때문에 느껴지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식된 나의 마음속 느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덕왕 19년 경자(760) 4월 2일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서 열흘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다. 일관이 아뢰었다. “인연이 있는 중을 칭해서 꽃 뿌리는 공덕을 지으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략) … 월명은 이에 「도술가」를 지어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가사는 이렇다. ‘오늘 이에 산화가를 불러 / 뿌린 꽃아 너는 / 곧은 마음의 명령을 부림이나 / 미륵좌좌주를 모셔라’ … (중략) … 조금 후에 괴변이 즉시 사라졌다. … (중략) … 이와 같이 월명의 지극한 덕과 지극한 정성이 미륵보살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

월명은 또 일찍이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서 재를 올릴 때 향가를 지어 제사지냈더니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려 없어졌다. 향가는 이렇다. ‘생사의 길은 / 여기 있으며 두려워지고 /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갔느냐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 한 가지에 나서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 아 미타찰에서 너를 만나볼 나는 / 도

5) Rogers(1961/2015: 145-151)는 심리치료 과정을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며 이를 개념화하였다. 이때 그가 주목했던 것은 “내담자가 표현하는 질(Quality)”로, 스스로 경험한 감정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에게 떠오르는 감정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표현하는 상징에 관한 질적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한 개인이 표현을 한다는 것에는 자신의 감정과 그에 따른 느낌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하여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를 닦아 기다리련다'

월명은 늘 사천왕사에 살았는데 피리를 잘 불었다. 일찍이 달밤에 피리를 불면서 문 앞의 큰 길을 지나가니 달이 그를 위해 가는 길을 멈추었다. ... (중략) ... 그러므로 자주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열흘 동안 떠 있는 일이나 누이동생이 일찍 죽은 일이 등장한다. 이는 어떤 문제로 상징될 수 있는 일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발생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어떤 불안, 두려움 그리고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와 동시에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재단함으로써 그 상황을 이해해보려는 노력도 시도한다. 문제를 대하는 분석적 노력이 불안, 두려움, 공포 등의 감정을 사라지게 한 것 같지만, 문제 상황이 종료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놀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상담에서는 종종 어린 시절이나 과거 그때의 경험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재현되는 느낌을 받는데 위의 설명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충격적인 일들과 관련된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때때로 지금의 우리에게 재생되어 긴장감과 경직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이때 월명사는 경직되고 단단해진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 때 경험했던 감정을 깊이 있게 만나 그 심정을 헤아리고 자신만의 느낌으로 표현해내는 과정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 그 때 거기의 자신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심정을 헤아리고 이를 표현해낸다는 것은 재앙을 겪을 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혈육을 잃음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자신이 겪을지도 모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을 지금 여기에서 재경험한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재경험에 대한 깨달음은 자신이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공포와 두려움, 그리움 등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었고, 이것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늘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때까지의 무의식적인 자기행동과 태도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의 느낌은 혼란스러움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월명사가 지어 부르는 향가들이나 달밤에 부는 피리처럼 자신만의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된다. 진심어린 표현은 다른 이의 마음에도 와 닿아 어떤 울림을 주기도 한다. 월명사의 표현에는 그의 진심이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마저도 감동하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진정으로 마주하게 된 내적 느낌과의 만남, 거기에서 드러나는 자신만의 표현은 자기 치유의 원초적인 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 “선율이 환생하다(善律還生)” - 원하는 바의 알아차림

마음의 상처가 녹아내리면 상처받았던 그 때 거기의 나를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상담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그에 관련된 감정들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그 이해가 자신의 마음에 와 닿았으며 자신만의 언어로 그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때 거기에서 겪었던 고통, 그 때 거기의 자신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진정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 치유의 힘으로 그 때 거기의 나로 머물러있는 자신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를 「감통」 일곱 번째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있다.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보시 받은 돈으로 「육백반야경」을 이루려 하다가 공이 아직 끝나기 전에 갑자기 염라국의 사자에게 잡혀 명부에 이르렀다. 명관이 묻기를, “너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였는가?” “빈도는 만년에 「대품반야경」을 만들다가 공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너의 수명부에는 비록 목숨이 끝났으나 좋은 소원을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서 보전 간행하는 일을 완성시켜라.” 이에 놓아 보내주었다.

그 때 거기의 나를 만나는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이야기 속에서도 명관이 무엇을 마무리 하지 못하였는지 묻고, 선율은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대답하는 과정으로 이것을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명확해지면 완성되지 못하고 미해결과제처럼 남아있는 그 때 거기의 느낌을 지닌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돌아오는 도중에 한 여자가 나타나 울면서 앞에 와 절하였다. “저도 남염주의 신라 사람이었는데, 우리 부모가 금강사의 논 1묘를 몰래 뺏은 일로 죄를 얻어 명부에 잡혀 와서 오랫동안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께서 고향에 돌아가시거든 우리 부모에게 알려셔서 그 눈을 빨리 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평상 밑에 묻어 두었고, 또 곱게 짠 베를 침구 사이에 감추어두었으니 부디 법사께서 그 기름을 가져다 불등에 불을 켜고 그 베를 팔아 경폭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러면 황천에도 또한 은혜를 입어, 제 고뇌를 거의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략) … 선율은 그 여자가 시킨 대로 명복을 빌었다. 그러자 여자의 혼이 찾아왔다. “법사의 은혜를 입어 저는 이미 고뇌를 벗어났습니다.” 그 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고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그 보전을 만드는 일을 도와

서 완성했다. 그 경질은 지금 경주의 승사서고 안에 있는데, 해마다 봄·가을이면 그것을 펴서 전독하여 재앙을 물리치기도 한다.

여기서 등장인물인 여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겪게 된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 고향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때 거기의 나와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의 명확한 확인의 과정이다. 당시에는 고통이 극심하여 주변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행동하는 것은 그 때 거기의 자신이 무엇을 원하였는지 알고 그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충족되지 못한 과거의 자신은 현재의 삶에서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이 지속될수록 삶에서 그러한 자신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신을 관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할 것이다.

9. “김현이 범을 감동시키다(金現感虎)” - 자기를 관찰하는 눈

과거 행동 양식이 현재 삶의 장면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상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인식은 반복되는 다양한 상황들과 대상들을 자기 스스로가 관찰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관찰에서 얻게 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어떠한 느낌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그 계기는 자기 내면에서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감통」 여덟 번째 이야기에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낳게 된 두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원성왕 때에 낭군 김현이 밤이 깊도록 홀로 탑을 돌면서 쉬지 않았다. 그 때 한 처녀가 또한 염불을 하면서 따라 돌므로 서로 정이 움직여 눈을 주었다. … (중략) … 조금 뒤에 세 마리의 범이 으르렁거리면서 오더니 사람의 말을 지어 말했다. “집안에 비린내가 나는구나! 요 깃거리가 생겼으니 어찌 다행이 아닐꼬?” 늙은 할미와 처녀는 꾸짖었다. “너희 코가 잘못 맡았겠지 무슨 미친 소리냐?” 그 때 하늘에서 외쳤다. “너희들이 사람의 생명을 즐겨 해침이 너무 많다. 마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을 징계하겠다.” 세 짐승은 그 소리를 듣자 모두 근심하는 기색이 있었다. 처녀는 말했다. “세 오빠가 멀리 피해 가서 자숙하겠다던 제가 그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 (중략) … “…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신다면, 낭군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겠습니다.” … (중략) … 김현은 벼슬하자 서천 냇가에 절을 지어 호원사라 이름하고, 상시 「범망경」을 강하여 범의 저승

길을 인도하고 또한 범이 제 몸을 죽여 자신을 출세케 한 은혜에 보답했다.

이 이야기에 등장인물은 김현, 늙은 할미와 처녀(본 모습은 호랑이), 처녀의 오빠인 세 마리 호랑이이다. 늙은 할미와 처녀에게는 마땅히 경계해야 하는 세 마리 호랑이들이라는 악이 존재한다. 이 악은 오로지 자기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아마도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불안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불안을 자극할만한 상황이 발생되면 숨겨졌던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늘의 외침과 같이 스스로를 늘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내면의 불안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존재의 힘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힘은 과거의 반복된 행동 양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불안이 어떠한 상황에서 자극되어 발생되었는지, 불안이 드러났을 때 결과는 어떠한지를 기억하는 것은 건강하고 기능적인 자기를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일상생활에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하여 해당 이야기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정원 9년(793)의 일이다. 중국 당나라 신도징이 야인으로서 한주 십방현위에 임명되었다. ... (중략) ... “소낭자는 총명하고 슬기로움이 남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직 미혼이면 감히 중매를 청하오니 어떻습니까?” ... (중략) ... 입지에 와보니 봉록이 너무 적었으나 아내는 힘써 집안 살림살이를 돌보았으므로 모두 마음에 즐거운 일뿐이었다. ... (중략) ... 드디어 함께 그 여자의 집에 갔더니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그 아내는 사모함이 너무 심하여 종일 울고 있더니 문득 벽 모퉁이에 한 장의 호피가 있는 것을 보고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 물건이 아직도 여기 있구나.” 마침내 집어서 그것을 덮어 쓰니 곧 범으로 변하는데 으르렁 거리며 할퀴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신도징은 놀라 피했다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녀가 떠난 그 길을 찾아서 산림을 바라보고 며칠을 크게 울었으나 마침내 간 곳을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에는 신도징과 신도징의 아내가 등장한다. 신도징의 아내는 스스로를 돌볼 겨를도 없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고 극복하며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며 그 결과 현실은 더 풍요롭고 나은 삶을 보여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면의 불안과 그로 인하여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미해결된 감정처럼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들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드러난 행동에만 주의집중이 되어 버리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내면의 이러한 과정에 의한

결과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달래는 것에만 급급하여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보살핀다는 것은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불안이 무엇인지 알고, 그로 인한 상처받음을 충분히 수용하며, 이것이 아물 수 있는 실천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때 스스로를 보살피기 위한 자신을 관찰하는 눈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신도징의 아내처럼 스스로와 주변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과거의 행동 양식으로 되돌아가게 될지도 모를 본 이야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10. “용천사의 「혜성가」(融天師彗星歌)” - 내면의 분열을 통합의 힘으로

「감통」 아홉 번째 이야기에 등장인물인 화량은 여행을 시작하고자 한다. 여덟 번째까지의 이야기들에서 등장인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본 이야기에 등장인물인 화량은 기존의 터를 벗어나 세상을 여행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 마음은 자신의 삶에서 이때까지의 과정을 적용하고 실천해봄으로써 치유의 힘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지와도 같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혜성이 떨어진 일처럼, 이때까지 자신이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과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담에서 내담자 스스로가 내적 치유 능력을 회복해가며 이를 자기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5 거열랑, 제6 실처랑-혹 돌처랑이라고도 쓴다-제7 보동랑 등 화량의 무리 세 사람이 풍악에 놀러 가려는데 혜성이 십대성을 범했다. 그래서 낭도들은 이를 의아히 여겨 그 여행을 중지하려 했다. 그 때 용천사가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불렀더니 별의 궤변은 즉시 없어지고 일본 군사가 제 나라로 돌아감으로써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임금은 기뻐하여 낭도들을 보내어 금강산에서 놀게 했다. ‘옛날, 동해가의 / 건달바가 논 성을 바라보고 / 왜군도 왔다고 / 봉화를 든 변방이 있다 / 세 화량이 산구경 오심을 듣고 / 달도 부지런히 켜려 하는데 / 길 쓸 별을 바라보고 / 혜성이여! 하고 사된 사람이 있구나 / 아아 달도 더 아래로 떠가고 있다 / 이바 무슨 혜성이 있을꼬’

화량의 무리가 기존의 공간을 벗어나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된 어려움에서 용천사라는 승려의 등장은 이 여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격려하는 과정에 대한 은유라고 볼 수 있다. 화량의 무리가 자기 삶의 주체성을 발휘하고자 여행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그 시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용천사는 그가 지은 노래와 함께 등장하

기 때문이다. 이 때 용천사가 지은 노래는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등장하더라도 이때까지 배우고 깨달으며 쌓아왔던 자기이해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자신만의 치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됨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능력을 회복하여 발휘하게 된 나는 더 이상 그 때 거기에 머무른 내가 아닌,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이다. 이때까지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하였던 분열된 자신이 하나의 통합된 나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혜성이라는 괴변을 물리칠 정도로 강력하지만, 「혜성가」처럼 마음에 와 닿는 부드러움이 존재할 것이다. 강하면서 부드러운, 이 모순의 통합은 새로운 나를 창조해냄으로써 무엇이든 가능하고 무수한 가능성을 지닌 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통합은 이때까지는 잘 몰랐으나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드러내주는 상징과 길라잡이가 되어 자기 삶의 주체성을 발휘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1. “정수사가 얼어 죽게 된 여자를 구하다(正秀師救氷女)” - 또 다시 시작되는 여정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모순이 통합된 힘으로 무수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나는 다시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까지의 여정으로 끝이 아니라 그 여정은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 과정을 「감통」 열 번째 이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은 승려 정수, 죽기 직전의 여자와 그녀의 자녀인 갓난아이이다. 「감통」 열 번째 이야기는 승려 정수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 자체로서의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0대 애장왕 때에 중 정수가 황룡사에 머물고 있었다. 겨울날 눈은 깊고 이미 날이 저물어서 삼랑사에서 돌아오는데 천업사 문 밖을 지나니 그 때 한 여자 거지가 아이를 낳고는 언 채 누워 있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 정수스님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안아주니 한참 후에 소생했다. 이제 체 옷을 벗어 거지에게 덮어주고 벌거벗은 채 본 절로 달려와서 거적 풀로 몸을 덮고 밤을 새웠다. 밤중에 하늘에서 궁정 뜰에 대고 외쳤다. “황룡사의 중 정수를 왕의 스승에 봉하라.” 급히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게 하니 사실대로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위의를 갖추고 정수를 대궐로 맞아들여 국사로 봉했다.

이때까지의 여정은 자기 탐구를 위한 경험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바닥과 같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삶에서 마주하는 대상들을 통하여 만나고 경험된다. 동시에 끊임없는 관찰과 인식 그리고 통찰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그 속에서 마주하게 된 땅에 누워있는 죽기 직전의 여자와 갓난아이는 자기 탐구 과정의 연속성을 상징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을 승려 정수가 안아 소생하게 되는 상황, 자기를 치장하고 덮을 수 있는 옷들을 벗고 벌거벗은 상태로 달려가 거적 풀로 자신의 몸을 덮는 상황은 각각의 대비되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일어 죽어가는 상태와 안아주어 소생하는 상태, 옷을 입은 상태와 벌거벗은 상태가 그것이다. 그 각각의 상태는 죽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거나 상처로 인하여 과거의 옷을 벗지 못한 그 때 그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마주할 수 있게 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때 거기에 존재하는 느낌은 지금 여기의 나에게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 다시 놓치고 있었던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한다.

이 과정은 자신과 삶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수도자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모든 삶에서 자신을 발견해내지만, 그 모든 삶이 자신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현실이라 믿어왔던 그것이 결국은 가상현실이었으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스스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으로 돌아 올 수 있게 된다. 결국 돌아온 이곳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정수가 황룡사에서 머물다 밤중 하늘의 외침으로 대궐에 들어가 국사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를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자기 탐구 과정은 종결이나 끝과 같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상태나 단계에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이 과정은 또 다시 지속적으로 순환할 것이고 확장될 것이며 이어지는 과정 그 자체일 뿐일 것임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게 된다.

Ⅲ. 논 의

본 연구는 『삼국유사』 「감통」을 한국의 상담 고전으로 이해하고, 그것의 현대적 의미와 그에 담긴 상담사상과 철학을 M. McLuhan의 “미디어가 메시지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유사』 「감통」은 어떠한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구성된 미디어라고 볼 수 있었다. 이 가르침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에 흔히 등장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담겨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하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 누구에게나 허락된 보통의 모습들이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내가 사는 나라, 우리의 삶과 밀접한 생활공간, 지역과 공동체라는 물리적 공간을 아우르는 그 이상의 공간이다. 또한 우리를 대표하는 왕, 삶의 이치를 가르치는 스승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유행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험을 시작하는 이들 등은 그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이기도 하다. 공간과 대상이 모여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들은 모여 어떠한 주제를 향하고 있었다. 자기와 자기 삶이 연결되는 깨달음 즉 자기를 이해하고 성장시켜가는 자기 탐구 과정이 바로 그 주제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었다.

자기를 이해하고 성장시켜가는 자기 탐구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자신만의 힘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다. 오늘날 이러한 과정을 직접적이면서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일 것이다. 본 편목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 일들은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그 상황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에 의하여 어떠한 답을 얻고 스스로와 기존의 상황을 변모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 과정이 오늘날 상담과 심리치료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삼국유사』 「감통」은 우리나라 고유의 상담사상과 철학이 담긴 상담 고전으로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삼국유사』 「감통」에 함의되어 있는 상담은 일련의 연속적인 자기 탐구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총 열편의 이야기들은 별도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각 과정은 부분을 생략할 수 없었다.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부분의 과정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유기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특정한 부분들이 어떠한 주제로 유목화될 수도 없었다. 앞의 과정을 통하여 당면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으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또 다른 깨달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통」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본 논문의 2장이 총 11개의 절로 구성된 이유이기도 하다.

각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선도산 성모가 불사를 좋아하다”는 ‘나에게 주어진 배움의 기회’와 ‘자각하지 못한 내재된 물음’. “여중 옥면이 염불하여 서쪽 하늘로 올라가다”는 ‘배움을 위한 수용적 자세와 태도’. “광덕과 엄장”은 ‘경계해야 할 행동과 실천해야 할 행동’. “경흥법사가 문수보살을 만나다”는 ‘아직은 알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수용’. “진신이 공양을 받다”는 ‘자각되지 못한 그 때 그 느낌의 재경험’. “월명사의 「도술가」”는 ‘그 때 그 느낌을 만나는 표현’. “선율이 환생하다”는 ‘원하는 바의 알아차림’. “김현이 범을 감동시키다”는 ‘자기를 관찰하는 눈’. “용천사의 「혜성가」”는 ‘내면의 분열을 통합의 힘으로’. “정수사가 일어 죽게 된 여자를 구하다”는 ‘또 다시 시작되는 여정’. 각 메시지들은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지만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음이 시작되고, 지식으로서의 깨달음이 자신만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해석으로 이어져 그 깨달음이 연속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깨달음은 한 단계로 경험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이어져 다음 단계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 탐구 과정은 깨달음의 과정이며,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보면, 새롭게 얻게 된 깨달음은 자기의 삶에 녹아들어 새롭게 자리 잡고 그것은 또 다른 자기를 밝혀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도 볼 수 있었다. 이 원동력은 일상생활의 문제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파편화 되어 있는 자기를 통합시켜 자신만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어떠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을 새롭게 형성하고 발휘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기 독립성 즉 삶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자기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조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 탐구 과정이 지향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삼국유사』 「감통」에서 언급하는 상담은 자기 탐구를 위한 이 모든 과정이 선순환되는 과정 그 자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감통」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인 “정수사가 얼어 죽게 된 여자를 구하다”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는 본편목이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함축한다. 정수사가 길거리에서 만난 죽은 모녀의 시체를 안아주어 살아나게 하는 이야기는 일상적으로 쉽게 이해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 「감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네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이러한 맥락과는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세상과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은 나라는 존재에 그 기준을 두고 있었다. 자기 탐구 과정에서의 물음 또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세상과 대상에서 나를 발견하는 여정으로 이어져왔다는 것은 이를 지지한다. 죽은 모녀의 시체가 되살아나고 정수사가 왕의 스승 즉 국사로 그 역할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의 상징된 의미로 살펴보면, 또 다른 차원의 장에서 자기 탐구 과정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 것임을 함의하고 있었다. 이때까지의 자기 탐구 과정은 기존의 관점을 초월하고 새로운 관점이 시작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질적 성격이 변형된 자기 탐구 과정은 세상과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왔던 관점으로서 나라는 존재의 틀을 넘어서게 한다. 또한 나라는 부분의 관점이 전체의 관점으로 초월되면서 이때까지 경험했던 현실은 더 이상 현실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 이는 현실이라고 믿던 것이 가상현실의 안경 속 세상이었으며 이제는 이것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수도자나 구도자와 같이 자기 탐구의 과정 즉 상담의 과정이 바로 자기 삶의 과정이 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이해해볼 수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중심이라는 부분의 관점에서 전체의

관점으로 삶을 조망할 수 있도록 관점의 초월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 과정에서 종결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상담 과정 속의 상담자와 내담자라는 역할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도 함께 맞이하게 됨을 뜻하며, 삶 속의 자기로서 자기 탐구 과정을 지속하는 기회의 장도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었다. 즉 상담 과정이 삶의 장면으로 확장되고, 상담적 실천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지금 여기에 발을 디디며 그 삶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 탐구 과정은 관점을 초월하고 삶에서 선순환되는 과정 그 자체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날 국내의 상담과 심리치료는 서양권의 학문에서 시작된 분야이면서도 동양권에 속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반영된 학문으로 꾸준히 발전되어 가고 있다.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와 스스로의 삶을 이해하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를 담고 있는 교육학, 심리학 그리고 관련 학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발전 과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과거를 잇고 양적 근거를 질적 근거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발견들은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가 확장되고 폭을 넓혀가는 발전 과정에서 그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적 상담의 정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추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三國遺事』.

- 권진숙 (2016).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관계 문화적 목회 돌봄. **목회와 상담**, 26, 42-82.
- 김균, 정연교 (2004). 마셜 맥루언의 매체 철학 [전자매체본]. **한국연구재단**, 1-172.
<https://www.krm.or.kr/krmnts/link.html?dbGubun=&metaDataId=4b76f6dc19523c5201196ef7793f1ea5>에서 2018, 11, 04 인출.
- 김문준, 하창순 (2013). 동양철학과 심리학 융합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상과 문화**, 67, 157-188.
- 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6). 사회적 공감 잠재계층 분류에 따른 재난 이후 사회적 공유와 공동체 리질리언스의 차이. **상담학연구**, 17(6), 183-204.
- 박재영 (2013a). 미디어의 관점에서 본 7세기 신라교육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영 (2013b). 음성미디어인 향가를 통해서 본 신라교육 연구. **교육사상연구**, 27(2), 61-80.
- 신창호, 은필관 (2011). 『삼국유사』에 수록된 시가와 배경설화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학**, 33(2), 76-96.
- 안경식 (2005). 한국 고대 교육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삼국시대 이전의 연구물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17, 97-121.
- 안경식 (2017a). 시조신화에 나타난 신라의 교육이념 탐구. **한국교육사학**, 39(4), 39-60.
- 안경식 (2017b). 신라 하대 불교지성, 진감 선사 삶의 교육학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54, 175-197.
- 안경식 (2018). 『삼국유사』에 구현된 일연의 교육사상. **교육사상연구**, 32(4), 85-114.
- 예철해 (2007).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一然)의 역사의식이 갖는 한국교육사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 24, 225-244.
- 이동식 (2008). **도정신치료 입문**. 서울: 한강수.
- 이동식 (2015).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한강수.
- 이무석 (2008).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서울: 이유.
- 이범교 (2015).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하**. 서울: 민족사.
- 이부영 (2017).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 이상민, 김은하, 김지연, 선혜연 (2018). 상담심리학의 현재와 미래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63-474.
-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87-607.
- 이재용 (2018). '채근담(菜根譚)'에 담긴 상담학적 의미 고찰. **초등상담연구**, 17(4), 491-511.
- 이재호 (2008). **삼국유사 2**. 서울: 숲.
- 이희백 (2011). 공감과 주객일치. **한국동서정신과학회**, 33-50.
- 이희백 (2012). 탐진지(貪嗔痴)에 대한 정신역동 상담적 접근. **교육치료연구**, 4(2), 1-19.
- 이희백 (2018). 핵심감정 극복과정에 대한 심우도(尋牛圖) 그리고 무아(無我)·연기(緣起)적 성찰: 자기 내러티브(self-narrative).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21(1), 119-142.
- 임태평 (2002). 『삼국유사』에 있어서 신라의 화랑(國仙)도 정신과 교육. **교육철학**, 20, 131-152.
- 하정룡 (2009). **삼국유사 교감역주**. 서울: 시공사.
- 한용진 (2007). 한국교육사 교재 분석 : 삼국시대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3(1), 5-28.
- Jung, C. G. (2015). **융 기본 저작집 9 인간과 문화** [*Grundwerk, Band 9: Mensch und Kultur*]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서울: 숲출판사. (원전은 1995에 출판)
- McLuhan, M. (2017).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김상호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원전은 2003에 출판)
- Rogers, R. C. (2015). **칼 로저스 상담의 원리와 실제. 진정한 사람되기** [*On Becoming A Person -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61에 출판)

□ 원고접수: 2019년 4월 10일/ 수정완료: 2019년 5월 12일/ 게재승인: 2019년 5월 17일

□ 이진현: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동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연구 관심분야는 깨달음,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사상 및 철학 등.

joo3712@gmail.com

<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Counseling Process
in Gamtong, Samguk Yusa**

Lee, Jin-hyun

This study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Gamtong in Samguk Yusa authored by Buddhist monk Iryeon as Korea's counseling classic and find out its modernistic implication.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on the prior documents on Gamtong in Samguk Yusa was made from the media's perspective of M. McLuhan. As a result, the contents acquir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tories described in Gamtong, Samguk Yusa had the form and composition of counseling and that they have the value as the counseling classic having the counseling idea and philosophy. Second, the self-exploration contained in Gamtong, Samguk Yusa was understood as a series of consecutive processes. It was found that the self-exploration process expands the individual's conscience level and integrates the fragmented internal forces to recover the subjective healing. Third, all these processes for self-exploration referred in Gamtong were found to be the process of virtuous circle. Last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Gamtong, Samguk Yusa, counseling process, counseling classic,
counseling idea, counseling philosophy